

쏟아지는 전세매물… 과연 안전할까?

신축 오피스텔 중심으로 매물 잇따라 나와
일부 이미 ‘근저당’ 설정… 자칫 피해 우려

제주시내에서 월세 50만원짜리 투룸에 살고 있는 A(34)씨는 최근 신축 오피스텔 전세 매물이 쏠 값에 쏟아진다는 소식을 듣고 계약을 결심했다. 대출을 받더라도 월세로 내는 돈보다 이자로 내는 돈이 훨씬 적게 든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전세 계약을 포기했다. 전세금 8000만원에 오피스텔을 계약하기로 했지

만,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A씨가 전세 대출이나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주변으로부터 의심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편지를 듣기도 했다”며 “하지만 종잣돈을 날릴 수도 있는 위험한 계약은 아예 하지 않는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제주에 미분양 주택이 늘면서 전

세 매물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등 문제가 될수 있는 매물도 일부 포함되면서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부동산 중개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제주시내 오피스텔 전세 가격은 평균 1억원 안팎으로 책정돼 있었다. 심지어 올해 준공된 오피스텔인데도 전세 가격이 3000만원으로 소개된 곳도 있었다.

하지만 일부 매물은 세입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전세권 설정, 전세 대출,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강통전세’가 포함돼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투자 목적으로 빚을 내 오피스텔을 샀다가 최근 미분양 사태로 어쩔 수 없이 전세를 놓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제주시내 한 공인중개사는 “근저당이 설정된 전세 매물을 계약하면 사고 발생시 채권 1순위가 세입자가 아닌 은행이 돼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수도 있다”며 “임차인이 아닌 기관에서 보증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나 건전성 판단이 이뤄지는 은행 대출이 가능한 곳으로 계약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은범기자

끊이지 않는 사행성 불법게임장

최근 4년간 460명 입건
압수된 게임기만 3530대

제주에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게임장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불법게임장 단속 건수는 2015년 61건, 2016년 69건, 2017년 70건, 지난해 66건이다. 이 기간 460명이 입건돼 9명이 구속됐다.

아울러 게임기는 2015년 987대, 2016년 1120대, 2017년 460대, 2018년 963대이며, 현금은 2015년 2210만원, 2016년 3500만원, 2017년 1200만원, 2018년 4956만원으로 최근 4년간 3530대·1억1866만원이 경찰에 압수됐다.

불법 유형으로는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행위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기 운영, 게임기 개·변조가 대부분이었다.

이밖에도 지난해 10월 제주시 삼도동에서 게임기 60대를 설치해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40대 업주 등 2명이 검거됐는데, 이들은 게임장 입구에 지문인식 기능이 담긴 환전기를 운영하는 신종 수법을 쓰기도 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서민의 주머니를 갈취하는 게임장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경찰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불법 게임장 집중단속’을 실시해 6건을 적발, 20명을 입건했다. 또 게임기 151대와 현금 788만원도 압수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도교육청 인사 1월·7월→4월·10월 추진

매년 2회→1회 축소 계획
교육노조 반발로 물러서

제주도교육청이 매년 2회 진행하던 지방공무원의 정기인사를 1회로 축소하려던 방침을 철회하고 시기만 변경하는 안을 마련했다.

제주도교육청은 매년 1월과 7월 시행하던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를 매년 4월과 10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행정지원 혁신의 일환이라며 매년 1월과 7월에 시행하던 정기인사를 매년 7월에 1회만 시행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개정안’을 지난 5월 입법에 예고했다. 당시 교육청은 1월 정기인사가 새학년을 준비하는 학교 현장에 혼란을 주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교육 활동 중심

의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공개되자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조(제주교육노조)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지방공무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1년에 2회 시행하던 정기인사 횟수는 그대로 유지하되 업무부담이 많은 새학기를 피해 4월과 10월에 시행하는 안을 마련했다. 교육청은 오는 26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연초는 예산 등의 이유로, 7월은 방학 중이지만 새학기 준비 등으로 업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했다”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명확한 인수·인계가 가능하도록 인사예고기간도 종전 7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늘렸다”고 말했다.

표성준기자



15일 제주시 학생문화원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한 독립유공자 유족 및 각급 기관 관계자, 도민, 학생들이 만세삼창을 하고있다. 이상국 수습기자

■ 어제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 거행

“이념을 넘어 더 큰 평화와 번영으로”

독립유공자 6명 추서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오전 제주시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성대하게 거행됐다.

이날 경축식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생존 독립유공자 강태선 선생(95), 황의균 제주도보훈청장, 애국지사 유족, 광복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부 회원, 관계 기관 및 단체, 도민, 청소년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이날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조국 독립에 기여한 제주 출신 독립유공자 6명이 건국훈장과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을 추서 받았다.

고(故) 김한정 선생은 건국훈장 애국장을, 고 강평국 선생과 고 현호옥 선생은 건국훈장 애족장을, 고 배창아 선생과 고 김태근 선생은 건국포장을, 고 이원영 선생은 대통령표창을 각각 받았다.

제주도는 이날 경축식에서 제주도

내 거주 후손이 확인된 고 배창아 선생의 자녀 배광흠씨와 고 이원영 선생의 손자인 이승훈씨에게 직접 포상을 전달하지 못했다.

이로써 제주출신 독립유공자는 생존 애국지사인 강태선 선생을 비롯해 현재 189명으로 늘었다.

원희룡 도지사는 이날 경축사를 통해 “일제의 침략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찾는데 희생한 선열들이 우리의 앞길을 비추주고 우리의 걸음을 함께 해줄 것”이라며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사사로운 이해관계, 정치적인 파벌, 이념적인 진영을 넘어서서 평화로운 제주의 더 큰 번영을 위해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제주시, 축산악취 민원 다발지역 집중점검

제주시는 축산악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축산악취 민원 다발지역 및 악취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야간 및 주말 등 악취민원이 급증하는 취식시간대 악취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 및 축사 내·외부 청결 상태를 집중 점검기로 했다.

제주시는 악취배출기준 초과 및 가축분뇨 무단배출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과실여부에 관계없이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지난 7월말 기준 가축분뇨 배출시설 416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 총 47개소의 사업장을 적발하고 고발 16건, 개선·조치명령 18건, 폐쇄명령 1건, 과징금 2건(2880만원), 과태료 33건(1580만원) 등 70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고태로기자

남시어선 85척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19~23일 남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남시 성어기를 맞아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서귀포시 관내 남시어선업 신고어선 85척으로 ▷안전설

비(구명조끼, 구명부환, 기관실 자동소화기 등) 구비 ▷불법 증·개축 ▷승선정원 초과 ▷보험공제 가입 여부 등이다.

서귀포시는 향후 준수사항 미이행 어선에 대해서는 출항제한 조치하고 특히 승선 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문미숙기자

진정한 흙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한번의 시비로 비료와 흙과 수분반응에 의한 농약성분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룩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잡초의 경감

N2O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높은 저장성

페르카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뿌리혹병의 경감

사용 기준

25K - 1포 (100~500평)사용

취급 품목

4종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황비료

관주, 염분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흙향기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앵배추브로컬리 무우 앵파배추

V패스(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제)

앵배추브로컬리 앵파배추 (500ml당 500배 희석)

- 소독 : 정식전 묘종을 적혀 파종(발근제는 필요없음)
- 1차 살포 : 파종후 10~15일 후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 10월경 찬바람이 불기전 살포
- 효과 : 뿌리혹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

감 자

- 1차 살포 : 싹이 10~15cm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 10월 찬바람 불기전 살포
- 효과 : 시들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

무 우

- 1차 살포 : 싹이 10~15cm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 10월경 찬바람 불기전 살포
- 효과 : 무청 바로 밑 검은띠 형성되는 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

마 늘

- 소독 : 파종전 침지 또는 적시어 파종
- 1차 살포 : 말칭전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 2월 말경 해빙기가 되면 살포
- 효과 : 잎지 썩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

곰팡이감굴유통상사

부영인 H·P 010-2633-5349